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남원시, 희망하우스 프로젝트

남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단순주거형과 문화공간형으로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에서는 총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택 소유주는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하는 조건이다.

단순주거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실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문화공간형은 지역 활동가(예술가) 등에게 무상 임대해 공방·화방 등 작업 및 전시공간, 학생·노인들의



남원시는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는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의 우범화를 막는 한편, 농촌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그동안 1억 5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1가구를 리모델링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했고, 2020도에도

희망하우스 프로젝트에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서광인 주택과장은 "시에서는 관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지난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지난 3월에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

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순창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1,410명이며,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53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cm×4.5cm), 신체검사서(단,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이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가능) 등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남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5일에는 식량산업 5개년(2019~2023년) 종합계획 발전협의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의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그동안 쌀 증산정책을 과감히 탈피한 식량산업육성의 발전방향과 고품질 쌀

안전적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계획 수립, 주요 식량작물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의 효율적인 운영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4개 지역농협과 미곡

종합처리장(4개소), 들녘경영체,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통해 지대별 적합한 고품질 쌀 재배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품목 육성했다.

안전적 수급 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재배 확대 등 최종 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제전위, 춘향제 사랑 등불행렬 추진

남원춘향제전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광한투원과 요천 일원에서 '광한춘몽 사랑에 빠지다'란 주제로 개최하는 제89회 춘향제에서 청사초롱을 들고 행진하는 사랑의 등불행렬을 준비했다.

대표 전통공연예술축제 춘향제는 광한투 600년 역사를 맞아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사랑의 등불행렬은 제89회 춘향제의 성공기원 및 소원성취를 위해 10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한다.

청사초롱을 들고 완월정 무대를 출발해 오작교, 춘향교, 승월교, 광한투 앞 제방에 도착하며, 남원농악보존회를 선두로, 에어버터틀을 행렬에 참가시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법 같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장학금 기부행렬에 수혜학생도 최대

90명 장학생 선발 증서 수여

임실군이 봉황인재학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폭발적인 장학금 기부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 민)는 2일 역대 최대인 총 90명의 장학생을 선발, 임실군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이사장인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선 지난달 19일 애향장학회(이사장 심 민)는 대학생 80명, 고등학생 10명 등 총 90명의 애향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애향장학생에게는 대학생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총 장학금액은 2억 5000만원 규모다.

애향장학생 선발은 역대 최대인 총 90명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행태가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생의 경우 기존 1회 지원에서 2회 지원(1~2학년 재학 중 1회, 3~4학년 재학 중 1회)으로 확대해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애향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민선 6기에 이은 민선 7기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출향인 및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지역민들의 자발적 기부행렬이 크게 기여했다.

실제 지난해 임실군 애향장학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억5830만원의 장학금이 기부됐다. 민선 6기가 들어선 해인 2014년 370만원(5건)에 비해 무려 4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 박상모 전 재경임실군항우회장이 5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1천만 원씩 총 1억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심 민 군수도 무려 2700여만원을 선뜻 기탁해 단체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기부금의 증가는 지난 해 초 봉황인재학당이 개원,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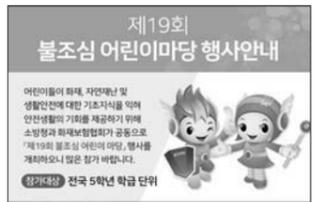
남원시보건소(보건소장 이순례)가 2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최된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한다.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부문과 우수사례부문 등 2개 분야에 걸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 2관왕을 수상했다.

그동안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절, 중풍, 치매, 비만, 임신육아, 스마트중독, 아토피 예방프로그램 등 생애 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한의약 보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취약지역 가정방문 한방진료와 찾아가는 무의명 이동진료 사업 등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 모집

남원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관내 42개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제1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을 모집한다. 이 행사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불조심 생활화와 소방안전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참가는 20명 이상의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단위로 가능하고, 학급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학급 또는 4~6학년 전원을 합쳐 참가 가능하다. 우수한 성적을 위해 여러 학급에서 학생을 선발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학습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를 제공하며, 오는 9월 5일 참가 학급별로 평가시험을 치고, 시·도별 최우수상 수상학급은 9월 25일 전국 단위 본선 평가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 진출 1개 학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의 상장과 최고 2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p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달부터 12월까지 '임실N청년 장터' 운영

임실군은 오는 5월 어린이날 연휴기간(5.3~5.6)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주말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청년 장터(이하 장터)'를 운영한다.

장터에는 (사)임실군마늘가꾸기협회의 회(회장 최기술)가 주관하여 18개 개인농가 및 체험마을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참여농가들은 목공예품, 오미자, 허브, 한과, 엿, 치즈가래떡 등 각기 다른 체험, 음식, 농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한다. 이번 장터를 위해 작년부터 임실군의 15개 농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농가 20명이 함께 사계절 축제를 기획하여 '임실N우리끼리 마을체험축제'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또한 임실교육지원청과도 농촌교육특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체험농가 중 다수가 임

실군에 귀농·귀촌한 젊은 청년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가칭)임실N청년'이라는 자생단체를 발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향후 임실군의 특색있는 농촌체험을 만들어 갈 잠재력으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번엔 개최하는 주말 상설 장터를 통해, 참여농가에게는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매년 30여만명 관광객이 다녀가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임실군은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4일부터 6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인형극'과 '마술쇼'를 개최한다.

또한 5월 5일은 '임실군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및 이벤트, 체험 및 먹거리부스 등을 운영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